

대학신입생 '필독도서'의 현주소

체제비판 및 이념도서가 주류... 폭넓은 '개방' 바람직

'의식화도서' 혹은 '불온도서'라는 이름 아래 대학생 나름의 필독도서가 존재해 왔음이 일반에게 알려진 것은 그리 오래지 않다. 이른바 문제학생들을 '문제성있게 만드는 主犯' 줌으로 이들 대학생 필독도서가 일반에게 알려진 것은 최근 10여년 사이의 일로, 대개는 사직당국의 수사발표나 재판과정, 그리고 신문 및 방송 등을 통해서였다.

그런 만큼 이들 대학생 '필독도서'가 갖는 불온성 여부와 의식화의 방향이 일반의 의구심 섞인 주목을 받아 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것은 마치 '마이더스왕의 손'같은 것이어서, 그것을 접하는 젊은 독자들마다 모두 赤性化시키는 마력을 지닌 것으로 여겨졌다. 따라서 당연하게도, 이들 일련의 대학생 필독도서의 영향력이 전파, 보급되는 일은 공적인 차원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차단돼 온 것이 저간의 사정이었다. 유신시대 이래 제5공화국에 이르기까지의 슬한 판공도서들의 존재는 그 좋은 예라고 할 만하다.

그러나, 그런 공적인 금제에도 불구하고 이들 도서들이 대학가에서 갖는 영향력은 조금도 시들지 않고 있다. 오히려, 그 전파의 속도나 보급의 범위가 점점 가속화되고 확대되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신입생에게 있어 그것은 '새로운 세계'로의 開眼을 유도하는 일종의 문화충격역까지 기능하고 있다.

최근에는 그동안 은밀하게 통용되던 대학생 필독도서목록이 '문서'의 형태로 점차 개방되고 있는데, 그것이 제6공화국으로 상징되는 정치상황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든 아니든, 이제 대학생 필독도서의 존재는 대학생들의 현실에의 눈뜸을 매개하는 의식화의 통과제이라는 점에서 각별한 주목을 요하는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의식화의 통과제의

대학생 필독도서의 면면을 가장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흔히 '커리'(커리큘럼)로 약칭되는 도서목록은 그 양적인 풍성함은 말할 것도 없고 내용도 매우 다양하다.

우선, 목록 작성의 주체가 일반 서클인 경우를 위시해, 학과별로 구성된 학회, 단과대학생회 및 총학생회, 그리고 심지어는 학교

현재 대학가에서 신입생의

필독서로 권장되는 책들은

크게 3가지 범주로 나뉘볼 수 있다.

그 첫째는 대학생 혹은

지식인으로서의 자기성찰을 유도하는

책들이며, 둘째는 역사와 사회에 대한

보다 심화된 과학적 인식들을

획득하는 데 도움을 주는 책들이다.

마지막으로는,

앞의 두 단계를 거쳐 확립된

세계관과 방법론 아래

오늘의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 모순의 인식에 기여하는 책들이다.

주변의 사회과학전문서점 등 대단히 여러 갈래다. 체제상으로는, 가장 소박하게는 手稿本을 복사한 것이 나도는가 하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자료집으로 인쇄된 활자본도 보이고, 아예 일반 출판사에서 한권의 책자로 엮어 서점에 내놓는 것도 있다.

내용 및 목록의 구성에 있어서도, 20권 안팎의 책제목만을 나열한 극히 소략한 수준의 '교양용' 목록이 있는가 하면, 수백권의 도서에 일일이 해제를 붙이고 그것들을 학습의 목적과 난이도에 따라 단계별로 재편성한 정밀하고 방대한 체계를 갖춘 목록들도 눈에 띈다.

따라서, 이들 도서목록의 공통분모를 단 몇 마디로 규정짓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각각의 목록들이 드러내는 층위와 차원이 상이하고,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그 목록대로의 독서와 학습을 통해 유발될 수 있는 실천적 결과에 대한 기대들이 또한 흔히 상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교적 잘 정제된 체제를 갖춘 목록들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대학생 필독도서의 대략적 면모들은 추출해낼 수 있다. 그것들은 무엇보다도 '한국사회의 구조와 현실을 꿰뚫어볼 수 있는 안목의 교양'이란 일정한 지향점에 한결같이 수렴된다. 예컨대, 대부분

의 목록들이 심진분류법식의 학문장르별 구성을 가능한 한 피하고, 다소 선연적인 명제들을 소항목으로 내세워 그에 해당하는 도서들을 유기적으로 배열하고 있는 점 등이 그 좋은 보기라 할 만하다.

자기갱신의 성찰을 유도하는 책들

현재 대학가에서 통용되는 도서목록의 대체적 분류를 따르면, 대학생 '필독도서'의 범주는 크게 3종류로 나뉘 살피볼 수 있다.

그 첫째는 대학생 혹은 지식인으로서의 자기자신에 대한 성찰을 유도하는 책들로, 대개 진보적 세계관의 확립이란 목적에 부합되는 목록들로 짜여져 있다. K대 국문과의 신입생을 위한 「88회회커리큘럼」에 의하면, "관제 교육에 의해 고정, 왜곡된 시각을 교정하고 비판적 안목을 넓히기 위한 기초적 커리큘럼"이 이에 해당하는데, 대학, 지식인, 민중 등에 대한 철학적, 사회과학적 논의들이 광범하게 망라돼 있다.

70년대 이래 필독도서의 고전으로 치부돼 온 「대학의 이념」(야스퍼스), 「지식인을 위한 변명」(사르트르)이 가장 대표적이며, 「민중과 지식인」(한완상), 「시대와 증언」(안병무), 「자주고름 입에 물고 옥색치마 휘날리며」(백기완), 「위대한 거부」(마르쿠제), 「옥중서간」(본회파), 「드레퓔스사건과 지식인」(할라즈), 「자기의 땅에서 유배받은 자들」(파농) 등도 꾸준히 필독의 대상이 돼 온 책들이다.

최근 2~3년 사이에 새롭게 필독도서로 목록에 등재된 책들로는 「저 들에 푸르른 숲있을 보라」(이정훈 외), 「산자여 따르라」(서울대 민주열사추모사업위원회), 「대학 문에 서서」(류병주) 등 「운동권선배」의 경험이 기술된 책들이 눈에 띈다. 나아가, 혁명적 생애를 살다간 세계각국의 인물평전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 또한 특징이라 할 만한데, 한 한국인 공산주의자의 삶의 궤적을 그린 「아리랑」(남웨일즈)을 비롯해, 「시몬느베이유 불꽃의 여자」(베르프랑), 「중국의 붉은 별」(스노우),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오스트로프스키), 「체 게바라」(싱클레어), 「가다피」(비안코), 「그람시의 생애와 사상」(무페) 등이

있다.

그밖에 수기나 문학작품 등 비교적 '軟性' 도서들도 그것들이 갖는 감성적 호소력이 자기갱신에 큰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비판적 안목을 기르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시되고 있음이 보인다. 「광장」(최인훈), 「깍지」(황석영), 「난장이가 쓰아올린 작은 공」(조세희), 「공장의 불빛」(석정남), 「노동의 새벽」(박노해), 「높은 노동자의 노래」(이택주) 등이 대표적이고, 최근에는 제3세계권의 문학작품도 다수 필독도서로 권장되고 있다.

여자대학의 경우는 性모순과 인간해방을 주제로 여성문제의 인식을 위한 커리큘럼도 따로 마련하고 있는데, 「여성해방의 이론과 현실」(이효재), 「미혼의 당신에게」(다나카 미찌코), 「자본주의와 가족제도」(자레스키), 「우리나라 가난한 여성에 관한 연구」(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 「여성의 사회의식」(이효재) 등이 목록에 올라 있다.

세계각국의 革命史 다룬 책도 많아

둘째는, 앞의 첫째 단계에서 이루어진 자기갱신의 토대 위에서 역사와 사회에 대한 보다 심화된 과학적 인식을 획득하는 데 도움을 주는 목록들이다. 이 범주에 드는 필독도서들은 주로 오늘날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규정짓는 사회법칙의 이해에 중점이 놓여 있는데, 대부분 세계사적 차원에서의 객관적 인식들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동안 '이념도서'로 분류되던 책들이 대부분으로서, 마르크스레닌주의, 자본주의론, 계급론, 혁명사, 종속이론, 신식민주의론, 노동운동론 등에 관한 책들이 주류를 이룬다.

이 중 철학부문의 필독도서로 가장 광범하게 추천되고 있는 것이 「철학에세이」(동녕)와 「철학사강의」(동경대출판부)로 이 부문의 기초도서라 할 만하다. 그밖에 「철학개론」(務台理作)과 「세계철학사」(녹두)도 비교적 널리 권장되고 있는 책인데, 좌파적 성향이 짙은 편이다. 그러나, 가장 특징적인 것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변증법, 그리고 사회사상에 관한 일련의 도서들이 다수 목록에 포함돼 있는 점이다. 마르크스사상에 대한 대표적 비판서인 「열린 사회와 그 적들」(포퍼)을 비롯



대학신입생 필독도서는 대개 서클이나 학회의 선배들을 통해 일종의 학습프로그램으로 전수된다. (사진은 K대의 필독도서 판매전)

해 「칼 마르크스」(이샤야 벌린), 「마르크스 사상의 이론구조」(피셔), 「청년 마르크스의 사상」(포피츠), 「칼 마르크스의 정치사상과 사회사상」(아비네리), 「변증법이란 무엇인가」(황세연), 「모순의 변증법」(슈틸러), 「모순과 실천의 변증법」(지양사편집부), 「사회사상사개론」(高島善哉), 「사회사상사」(平田清明) 등이 있다.

경제부문은 「경제사관의 제문제」(셀리그만)를 기초도서로 「아시아적 생산양식론」(신용하), 「마르크스의 비서구사회론」(김세연) 등 前 자본주의 생산양식에 관한 책, 「자본주의 발전연구」(뉘), 「자본주의의 역사와 구조」(坂本和一) 등 자본주의 이행논쟁에 관한 책, 그리고 독점자본주의와 제국주의, 신식민주의, 종속이론 등에 관한 책들이 골고루 망라돼 있음이 보인다.

역사부문에서는 「역사란 무엇인가」(카아), 「사관이란 무엇인가」(차하순), 「역사를 위한 변명」(블로흐), 「분단시대의 역사인식」(강만길) 등 역사일반에 관한 책들과 아울러, 특히 러시아, 프랑스, 중국, 제3세계 등의 특수한 경험을 부각시킨 일련의 혁명사들이 주류를 이룬다. 「프랑스혁명에서 파리공민까지」(노명식), 「프랑스혁명사」(마피에), 「스페인

내전연구」(齋藤孝), 「북아일랜드 그 원한의 역사」(池田文雄), 「러시아혁명사」(김학준), 「볼셰비키와 러시아혁명」(황인평), 「레닌과 러시아혁명」(힐), 「볼셰비키혁명사」(카아), 「소비에트러시아사」(최승), 「중국현대혁명사」(池田誠), 「중국혁명의 해부」(동경대출판부), 「코민테른과 대장정」(오토 브라운), 「중국공산주의운동사」(슈워츠), 「라틴아메리카 현대사」(後藤政子), 「쿠바혁명사」(휴버만), 「베트남 민족해방운동사」(유지열) 등이 대표적인 이 부문의 필독도서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 문학 및 예술에 관한 책들은 루카치와 골드만, 그리고 프랑크푸르트학파의 일련의 저서들이 주로 목록에 올라 있는데, 다른 부분에 비해서는 비교적 소홀히 취급되고 있는 편이다. 이 부문의 고전적 필독서로 「문학의 사회사」(하우저)가 70년대 후반 이래 꾸준히 권장되고 있다.

한국사회의 구조적 모순 분석

마지막으로는, 이른바 '체제비판적' 도서로서, 앞의 두 단계를 거쳐 확립된 세계관과 방법론을 갖대로 삼아 오늘의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제점과 구조적 모순을 인식하는 데

기여하는 목록들이다.

이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이 한국근·현대사 부분을 집중적으로 거론한 책들이다. 「해방전후사의 인식」(송건호 외)를 비롯해 「분단전후의 현대사」(커밍스), 「한국현대사의 재조명」(서대숙), 「1950년대의 인식」(김학준 외), 「한국현대사」(볼드윈), 「해방 3년사」(송남헌), 「한국미군정사」(라우터백), 「한국현대사」(林健彦), 「해방과 미군정」(계인) 등이 대표적이며, 통사료로는 「한국민중사」(폴빛편집부) 및 「한국근대사」(강만길) 등이 필독서로 권장되고 있다.

아울러, 「북한기행」(양성철 외), 「북한정치경제입문」(김일평), 「북한사회의 재인식」(양호민 외) 등 한국사의 상실부분인 북한지역에 대한 연구서들도 목록에 제시돼 있음이 보인다.

또, 한국사회의 자본주의적 재편과정과 그 성격문제를 거론한 책들도 다수가 필독서로 추천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특히 최근의 사회구성체논쟁에 힘입어 가장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자본주의론」(이대근), 「한국자본주의와 노동문제」(박현채), 「후진국경제론」(조용범), 「한국경제구조론」(박현채), 「한국경제의 실상과 허상」(유인호) 등이 이 방면의 대표적 권장도서라 할 수 있다.

그밖에 정치, 경제, 사회에 걸친 일련의 시사평론집들도 한국사회를 인식하는 '감각'을 익힌다는 점에서 다수가 추천되고 있다. 「우상과 이성」(이영희), 「상황과 비판정신」(임재경), 「정치와 문화」(장을병), 「민중과 경제」(박현채)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보다 실천적 차원에서 노동문제를 다룬 책들도 눈에 띄는데, 「한국노동운동론」(김금수), 「동일방적 노동조합운동사」(동일방적부직투쟁위원회), 「현장동료와 함께」(이혜성), 「선봉에서 서서」(서울노동운동연합), 「노동현장의 진실」(이태호) 등이 필독서로 꼽히고 있다.

대학생 필독도서가 갖는 의의

위에서 보듯, 대학생 '필독도서'는 대개 일종의 학습프로그램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그것들은 그저 단순한 독서지침으로

보다는 선후배간에 이루어지는 독서경험의 체계적 전수라는 점에서 대학문화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이들 필독도서는 오늘날 우리의 대학생들이 민주화운동의 아방가르드로서 갖는 정치적 위상과 서로 그 원인과 결과로 맞물려 있다. 그런 만큼 그것들이 지나치게 정치지향적이라는 혐의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대학이 필독도서의 주류를 이루는 내용들이 정치지향적이란 것 자체가 타기할 만한 현상은 결코 아니다. 다만, 그 정치지향성이 폭넓은 '인문적 교양'에 기반을 두지 못할 때 야기되는 배타적 편협성은 우려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우려가 현실로 드러날 조짐은 적지 않다.

예컨대, 필독도서목록이 너무 '진지한 독서'만을 요구한다는 지적같은 것이 대표적인데, 그런 일관된 진지함이 사고의 경직성과 연결될 소지는 많다. 진지함에는 흔히 또다른 진지함을 포용할 만한 여백이 없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대학가에서 통용되고 있는 필독도서목록은 좀더 너그럽게 개방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들이다. 말하자면, 목록 자체가 다양하게 개발돼 선택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이들 일련의 필독도서들이 갖는 의의는 결코 만만한 것일 수 없다.

우선, 그것들은 국민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이른바 12년간의 주입식 제도교육으로 길들여진 의식을 해방시키고,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문제, 개선해야 될 모순들을 정리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나아가 그런 문제와 모순들의 해결을 위한 도덕적 실천으로까지 독자들을 이끈다는 점에서 그것들이 갖는 의의는 높이 평가돼야 마땅하다.

아울러, 이들 필독도서의 독서와 토론을 통해 구축되는 비판적 대학문화가 기존의 여타 문화체계들에 대해 일종의 건전한 대항문화(counter-culture)로 기능하게 된다면, 대학생 필독도서의 의의는 대학의 울타리를 넘은 보다 적극적인 것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철주 기자